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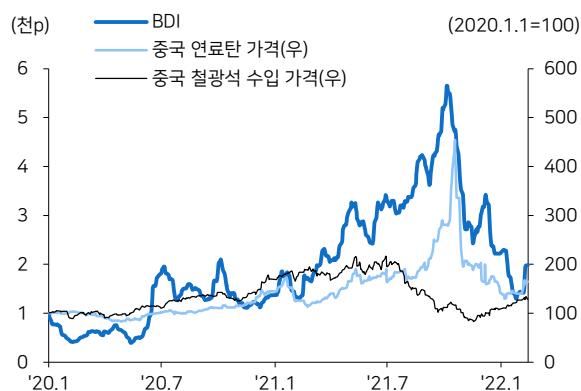
2022. 2. 16 (수)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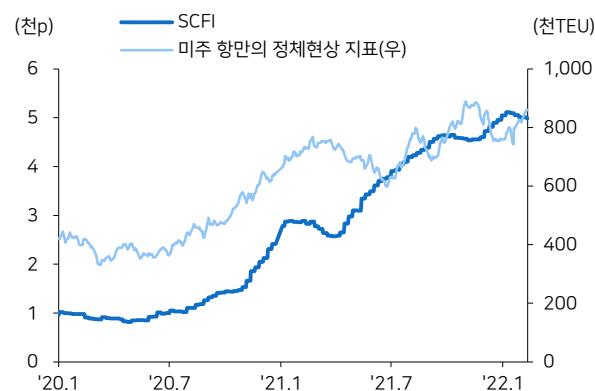
#### 건화물운임(BDI)

1,968.0p(-16.0p DoD)



#### 컨테이너운임(SC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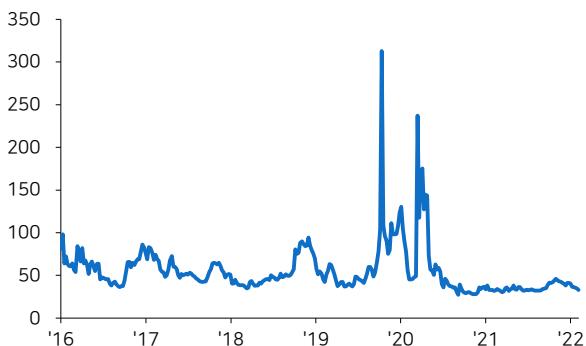
4980.9(-29.1p)



#### VLCC Spot Rate

32.5(-0.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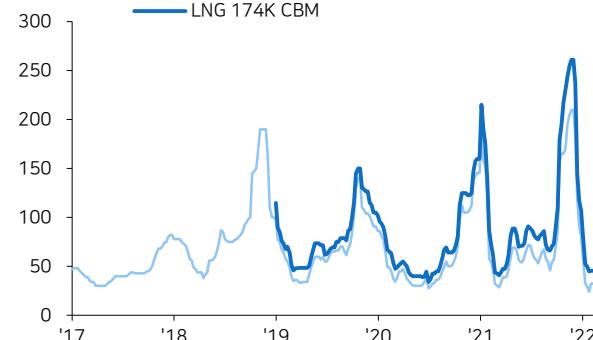
#### (WS) VLCC Earnings



#### LNG Spot 운임

32.5p(+0p WoW)  
45.5p(+0p WoW)

#### (천달러/일) LNG 160K CBM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6.4p(+1.3p WoW)  
200.0p(+0.0p WoW)

#### (p) 신조선가



#### 항공화물 처리량

308.2p(-3.9p DoD)  
105.3p(-1.5p DoD)

#### (p) MSCI 항공화물 index



주: 컨테이너 운임(SCFI)는 춘절이후 2주만에 업데이트됨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베트남, 국제선 운항 정상화…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으로 증편

베트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국제선 정기 운항을 2월 15일부터 재개, 코로나19 확산 이전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됨. 백신접종자의 경우 3일 격리로 방역 수칙도 완화한 바 있음. (에어진)

### 중국 항공당국 "2023년부터 국제선 운영 회복 시작"

중국 항공당국이 '14차 5개년 민항 발전계획(2021-25년)'과 '계획해설'을 통해 2023년부터 국제선 운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보도됨. 현재 중국은 항공사들이 국제선 운영을 코로나19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도록 한 바 있음. (에어진)

### 드릴십 선주, 대우조선해양에 반소 제기

대우조선해양은 NDL 종재건과 관련해 드릴십 공정 관련 선주 측으로부터 반소가 제기됐다고 공시함. 원고는 West Aquila로, 청구 금액은 1,115억원임. 선주의 반소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 중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 Ocean Network Express shortlists yards for \$800m container ship deal

ONE이 13,0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의 발주처를 선정 완료했다고 보도됨. 일본, 중국 조선소 각각 1곳, 한국 조선소 2곳임.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것으로 추측함. (Tradewinds)

### QatarEnergy inches up its declared LNG berths at shipyards to 20 slots

QatarEnergy가 계획된 전체 151척 중 발주선박을 20척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보도됨. 2월 중 현대중공업에 1척, 대우조선해양에 5척을 발주할 계획임. 2월 중 현대중공업에 2개 슬롯을 추가해 총 6개 슬롯을 계약할 것으로 보도됨. 2월 중 용선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구체적인 매칭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몇 달뒤 건조 및 용선 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임. (Tradewinds)

### 푸틴 "전쟁 원하지 않아"…솔츠 "러시아군 철수는 좋은 신호"

러시아는 일부 군대를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철수했다고 보도됨. 어제(15일) 러시아-독일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간 긴장 완화 방안이 논의됨. 푸틴 대통령은 협상안을 내놓은 이유는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한국경제)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